

해외귀국아동의 異문화체험과 귀국 후 사회·심리적 적응*
Intercultural Experience and
Socio-Psychological Adjustment of the Children Returning from Abroad*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강란혜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Catholic Univ.

Lecturer : Kang, Ran Hy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r-cultural experience and socio-psychological adjustment to the current life among children who have returned from living abroad.

The subject of research consisted of 102 boys and 110 girls from fourth grade through sixth grade who returned to their home country after living in a foreign country. Data were collected from 5 elementary schools in Seoul.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children's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were represented by 3 categories: school/friend relationship, stress/strain, and language/learning.

The following are the summarized results; First, girl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adapt to school/friend relationships in Korea and had lower stress/strain than boys. Second, the children having shorter period of residence in foreign country, lower adaptation ability to different culture and extrovert personality showed higher socio-psychological adjustments after returning to Korea. Third, the adjustment to school/friends was influenced by period of residency in the foreign country, the experience of different culture, and extrovert personality. The experience of different culture and extrovert personality effected stress/strain, and the

* 이 논문은 2000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Post-Doc.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krf-2000-CA0073).

adjustments to language/learning were influenced only by the experience of different culture. Lastly, the experience of different culture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fluencing all 3 categories of socio-psychological adjustments.

주제어(Key Words): 異문화체험(inter-cultural experience), 사회·심리적 적응(socio-psychological adjustment), 해외귀국아동(the children returning from abroad)

I. 서론

오늘날 개방화·국제화 추세와 더불어 우리 나라도 국제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활발한 국제교류의 추진은 국민의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고 다양화시켰다. 따라서 2000년부터 해외 유학이 자유화되어 초·중고 학생들이 쉽게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위해 단기간 해외를 여행하는 학생들의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연간 조기유학생의 수는 1만 명을 초월하고 있다¹⁾.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직업적 목적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영구적으로 해외에 머물기도 하고 일시 체류 후 한국으로 귀국하기도 하고 또한 해외로 이민을 갔던 교포들이 역 이민하는 현상도 늘고 있다. 그에 따라 귀국하는 해외 귀국 학생도 수적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1995년부터 최근 5년간 38,631명, 1999년 한해에 귀국한 학생은 6,510명에 이르고 있다(국제교육진흥원, 1999).

이러한 異문화 접촉에 의한 문화적 마찰, 해외 부적응, 그리고 異문화 체험은 어른뿐만 아니라 아동에게도 적응해야 하는 문제를 수반한다. 부모의 해외에서의 이주나 일 관계로 해외에서 장기체재를 경험한 아동들이 수년간의 외국생활로 인한 문화적 충격문제 뿐만 아니라 異문화를 접하고 다시 모국의 문화에 접할 때 언어, 학습 그리고 정서, 사회적 문제를 요구한다(한국교육개발원, 1992). 귀국한 아동이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현상은 귀국 후 재 적응의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고(동아일보, 1993년 7월 13일), 이에 따른 귀국자녀들의 생활 적응과 학습적응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미 일본에서는 귀국자녀교육이 1960년대 후반부터 제도적으로 시작되었다. 귀국자녀들을 위해 동

경학예대학 내 해외자녀교육센터에 '귀국자녀 특별 학급' 을 설치하였으며, 그로부터 40년 가까운 연구와 실천을 통해 단순한 특수교육의 하나로 머무르지 않고 그 동안의 異문화 이해교육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중요한 교육으로 자리잡게 되었다(濟藤, 1996). 일본은 우리보다 30년 정도 앞서 이 교육문제에 대처했고 많은 연구와 투자를 거듭해 이제는 확고히 정착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귀국자녀 교육"의 특징은 아동 하나 하나의 특성에 맞는 철저한 개별지도, 귀국자녀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의 개발과 시행, 교육상담을 통해 언제라도 귀국자녀를 받아들이는 체제와 적응교육은 물론 해외에서 익힌 언어·문화의 유지 신장, 그리고 일본아동의 국제이해 교육에 귀국자녀 교육을 이용하는 등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1977년부터 공식적인 발족아래 교육부와 매스컴의 관심은 있었으나 해외 귀국 아동에 대한 교육이나 적응의 문제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 교육부 주관으로 1989년부터 귀국아동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와 서울대학교 부설 재외국민교육원에서 방학 동안 귀국자녀 특별 학급을 설치하여 운영해 왔고, 1992년 서울대학교 부설 재외국민교육원을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으로

1) 교육부는 2000년 8월 3일 현행규정은 고졸이상 학력자나 예체능계 중학교를 졸업한 뒤 학교장 추천을 받아 교육감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은 학생만 유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가 조기 유학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조기 유학생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99학년도 불법조기유학생은 98학년도에 비해 46.1%늘어나는 등 증가추세다(동아일보, 2000년 8월 3일).

확대, 개편하여 장기간 해외거주 후 귀국한 귀국자녀들의 학습 및 생활적응을 돕고 방학을 이용하는 귀국 자녀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교육 내용이 국어능력과 학교학습의 보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주로 서울이나 큰 도시 등의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매우 제한적이고 최근 국내 외국인 학교에 5년 이내의 귀국자녀도 입학허용에 관해서 논의가 된 것도 이를 반영해준다 (SBS 난상토론: '외국인 학교 개방-시대적 조류인가', 2000년 7월 22일; 동아일보 2000년 7월 29일). 결과적으로 우리말을 잘하고 성적이 어느 정도 괜찮으면 적응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생활 적응여부만을 토대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실제로 귀국한 아동들은 우리말을 잘하게 되고 학교 공부를 어느 정도 적응하였으나 표면화되지 않은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최만희, 1993), 많은 연구자들은 처음 외국에 나가서 겪는 문화충격보다 외국에 나갔다 귀국해서 겪는 복귀문화 충격이 더 큰 심리적, 사회적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한다(Abe, 1983; Adler, 1975).

귀국아동은 신체적 발달이나 인지 및 정서발달에 큰 변화를 겪는 시기이므로 성인기에 비하여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아동기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은 이후의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심리적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Black, Mendenhall & Oddou, 1991; Bochner, 1982).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 계속되면 구체적으로 부적응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箕浦(1981)은 해외귀국아동의 문제행동으로 등교거부, 우울, 무기력, 식욕부진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해외 귀국아동은 귀국 후의 큰 환경의 변화로 국내거주 아동보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더 경험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귀국아동의 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학교생활과 관련된 아동의 개인적 요인(성별, 연령, 체류기간)과 학습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심리적 문화적 차원에서 친구관계, 해외에서 귀국 후 현지 생활에서 적응함으로서의 문화적 갈등,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에 대해서 연구되어진 것은 거의 없다. 이에 개인적 요인과 심리적, 문화적 차원을 동시에 다룬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귀국 후 적응에 있어 학습이나 학교 생활 뿐만 아니라 아동의 개인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해외귀국아동의 특징을 밝혀보고자 한다. 아울러 異문화 체험과 귀국 후 적응과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귀국 후 적응의 문제점을 통해서 귀국아동의 적응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귀국 후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들의 교육과 상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해외 귀국아동의 생활 실태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해외 귀국아동은 현재 생활에서의 사회·심리적 적응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 <연구문제 3> 해외체류기간 및 異문화체험과 귀국 후 사회·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인가?
- <연구문제 4> 아동과 관련된 변인과 異문화체험이 해외귀국아동의 귀국 후 사회·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적응의 개념

적응(adjustment)의 의미는 원래 종족 보존을 쉽게 하기 위한 생물학적 변화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심리학적으로는 개체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적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Lazarus(1976)는 적응이란 주변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 개인의 투쟁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적응이란 두 가지 과정 즉,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과정과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北村(1965)은 적응이란 주체로서의 개인이 그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환경의 제 조건과 조화적 관계를 갖는 반응을 하도록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제가 되고 있는 귀국아동에 관한 적응의 문제에 한정한다면 그들은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사회를 떠나서 단기간 내에 새로운 환경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행동 방식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새로운 것은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 문화적 환경을 포함하여 자신의 생활에 새로운 것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 것이다. 개인과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욕망과 충동을 사회가 허용하고 개인은 사회 여건에 가능한 방향으로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제한하고 목표를 수정하면서 살아갈 때, '잘 적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은 누구나 완전무결한 적응이나 반응을 할 수는 없다는 능력의 한계가 존재한다. 적응의 실패가 부적응(maladjustment)으로서 조화적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그 개인 혹은 주변의 사람이 긴장, 불쾌, 고통 등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적응은 개인과 환경이 조화로운 관계유지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때, 적응과 부적응의 차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의 가능성의 차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이란 아동이 귀국 후 언어, 습관, 교육제도 및 환경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장애요인을 극복하여 우리문화에의 충격에서 벗어나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교 교육을 잘 따라가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맺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만족스럽게 생활하는 과정이다.

귀국하여 돌아올 때의 적응도 외국에 나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U-곡선(Lysgaard, 1955)과 비슷한 형

태라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때에는 U곡선의 전체 범위는 U가 아니라 W-곡선이라고 주장하였다(Gullahorn & Gullahorn, 1963). 그러나 귀국후의 적응에 관한 연구는 외국에서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연구는 일본에서 이루어졌다(齊藤, 1996). 복귀쇼크는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여 이문화에 적응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에 본국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다(近泰裕, 1981). 복귀쇼크로 생기는 현상은 단순한 '문화충격'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문화와 이국문화와의 충돌현상으로 나타나는데 齊藤(1996)의 연구는 귀국후의 복귀쇼크도 외국에서의 문화충격과 비슷하여 수주일부터 수개월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며, 명백한 정신장애로 보이는 경우나 그러한 징후가 보일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만 한다고 기술했다.

2.. 이문화 체험과 귀국아동의 적응

귀국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을 한마디로 포괄할 수 있는 것이 '문화충격' 이라는 개념이다. 異문화를 접할 때 느끼는 부자유나 부적응은 불안감을 조장하는 큰 요인이 되며, 새로운 환경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타인과의 교류를 위한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자연스럽게 쓸 수 없다는 심리적인 혼란 상태를 낳게 된다.

문화아동으로서의 적응의 문제는 Oberg(1970)가 이문화에의 이행으로 인해 생겨나는 현상을 다룬 논문의 제목으로 문화충격을 언급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시기에 일본의 국제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외국의 문화에 접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단기간에 급속하게 보급시키면서 이문화 체험이란 용어를 箕浦(1984)가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나 개념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하고 있지 않고 이문화 중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 어떠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사회학적 입장과 이주해온 외국인이 문화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접근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문화 체험은 이문화

와의 접촉에 의해서 생겨난 개인의 내적과정에 관한 변화를 가르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齊藤, 1996). 다시 말해 이문화 체험이란 상호작용 하는 주체로서의 개인의 내면에 초점을 두고 대인행동을 어떻게 느끼고 보는가를 말한다. 이문화에 적응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에 겪고 체험하는 복귀문화 충격(reverse culture-shock)에 대해서 연구되어진 것은 거의 없고, 몇몇의 연구는 주로 해외귀국청소년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복귀문화충격은 일상적으로 기대하고 예상할 수 있었던 환경이 낮설고 예측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는 데서 오는 것으로서, 이러한 외부의 혼란이 내부의 혼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된다(Guerrero, 1974). 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처함에 따라 기존의 자아정체감(identity)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데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보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정서적 성장을 경험할 수도 있고 침체와 퇴보를 경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충격 혹은 복귀문화충격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귀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귀국아동의 수가 급증하고 그들의 국내 적응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 나라에서는 귀국아동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편이다. 國際化和 世界化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연구는 의미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된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의 경우 지금까지 귀국아동에 관한 교육 및 연구의 접근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언어적 접근, 카운셀링적 접근, 심리적·교육적 접근이다. 그중 심리·교육적 접근에 관한 연구의 특색은 1960년대는 귀국아동에 관한 교육에, 1970년대는 귀국아동의 국내학교에 대한 적응의 문제로서(小林, 1975; 1978), 여기서 중심과제는 귀국아동을 조기 국내 학습과 생활에 동화시키는 적응교육에 초점을 두었다. 1980년대는 귀국아동과 국내아동의 특성과 자아정체감의 차이를 보는 경향이었고(星野, 1980), 1990년대 들어와서는 해외귀국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의 외국인 아동을 포함해서 이문화간 이해교육, 국제이해교육에 관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귀국아동에 관한 연구는 해외귀국아동의 국내의 동화(同化)교육으로부터 그러한 해외귀국아동을 받아들이는 측을 포함한 국제이해교육의 방향으로 전개해 가고 있다(左藤, 1993).

우리 나라의 지금까지 해외 귀국아동을 주제로 수행된 연구는 극소수이다. 그 중 몇 가지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최양호, 최명숙(1985)은 전국의 초, 중 고 해외 귀국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설문지 조사연구를 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귀국 후 언어의 부진함의 원인에 대한 보답으로 “해외에서 우리말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가 55%였으며, 공부가 잘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대답으로 “기후, 건강, 교사, 친구”가 69.3%로 가장 많았다. 또한 가장 힘든 과목은 국어로 46%이고, 공부방법의 차이는 38.5%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학습의 어려움은 전체의 85%에 이르고 있다. 또한 최화순(1990)은 해외귀국아동 195명을 대상으로 한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해외 귀국아동들은 학년, 성별, 해외 체류 기간에 따른 신체, 학교, 학습의 적응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들의 국내거주 기간에 따른 신체, 가정 적응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교 학습적응에 있어서는 언어, 교육과정, 친구관계에 있어 부적응을 보였다. 또한 해외 귀국아동과 국내 일반아동을 비교한 결과 신체, 학교, 학습 적응에는 차이가 없었고, 가정적응에서는 귀국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적응이 더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권선미(1997)는 해외 귀국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귀국 아동이 교우관계에서 관념의 차, 일반아동의 폐쇄적인 태도, 기본 생활 문화의 차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놀림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인성형성과 올바른 자아정체감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귀국아동들이 외국에서 익힌 시민정신, 성실한 태도, 합리적인 사고와 솔직한 표현은 일반아동들에게는 부족한 것들로, 우리교육 현장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귀국아동들이 겪는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의 적응문제를 고려

해야 한다. 그러나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해외귀국아동에 관한 연구를 개관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귀국아동의 적응이나 특성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귀국아동의 성별, 학년, 체류기간이나 국내체제 기간 등, 개인적 요인과의 관계를 본 연구(김미경, 1999; 임경혁, 1994; 최화순, 1990; 조경호; 1985; 糖, 1995)는 많다.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결과들은 아동의 성별과 연령, 체류기간에 따라 비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성에 따른 차이가 보고되는(김미경, 1999) 한편, 귀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적응은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개인의 행동이나 적응을 좌우하게 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은 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해외 귀국아동의 연구는 개인적 요인과 학습활동에만 초점을 두고 기술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귀국아동의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그다지 중요시 다루지 않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 특히 귀국아동의 異문화 체험 및 성격과 귀국 후의 적응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3. 용어의 정의

1) 해외귀국아동

귀국학생의 개념은 귀국자녀로서의 초·중·고생을 의미한다. 교육부가 귀국 학생을 정의한 개념을 보면,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외국의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으로 귀국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초·중·고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귀국자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개념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하여 1년 또는 2년 이상의 해외 거주에, 1년 또는 2년 이상 해외의 학교에 수학한 경험이 있는 학생 등으로 규정하여 융통성 있게 쓰여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교의 저학년의 경우는 1년 정도만 해외의 학교에 있어서도 언어 및 행동 발달과 문화의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년 이상 해외 거주에, 1년 이상 외국의 학교에서 수학한 학생을 귀국학생으로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차경수, 1998).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 파견되는 부모를 따라 적어도 1년 이상 외국에 나갔거나 그곳에서 출생하여 현지의 교육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부모를 따라 귀국하여 우리 나라 학교교육을 받게 된 연령층의 자녀라고 정의하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초등학교 아동을 '해외 귀국 아동' 이라고 정의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문화 내(內)의 대인관계를 배우는 臨界期는 아동기 후기라고 말해지고 있다(箕浦, 1984).

본 연구에서 다루는 異문화 체험과 적응은 대인관계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동기 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질문지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해외체제경험을 갖고 있는 아동이라도 질문지의 한국어를 이해할 수 없으면 본 연구의 방법에서는 그들의 異문화 체험과 적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문항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황에서 작성하도록 하였다.

학년별 분포를 보면 해외귀국아동의 경우 5학년이 27.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에 체류한 지역별로는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는 북아메리카 지역이 거의 절반 정도인 49.0%,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 21.6%, 유럽에 14.7%,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기타지역에 11.8%로 나타났다. 외국에서 체류한 총 연수는 5년 이상이 58.8%로 절반을 넘었으며 다음으로 4-5년 해외에서 거주한 아동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이 외국에서 다닌 학교는 전일제 한국학교가 2%, 현지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배경요인	집단	N(%)	배경요인	집단	N(%)
성별	남아	102 (48.1%)	귀국당시 연령	1. 10세 이하	104 (50%)
	여아	110 (51.9%)		2. 11세 이상	102 (49.2%)
학년	4 학년	44 (20.8%)	출생지역	1. 한국	166 (79.8%)
	5 학년	120 (27.4%)		2. 외국	40 (19.2%)
	6 학년	48 (22.6%)			
아버지 직업	1. 없음	4 (1.9%)	해외에서 사용한 언어	1. 영어	158 (77.5%)
	2. 생산직	8 (3.8%)		2. 일어	24 (11.8%)
	3. 서비스직	10 (4.8%)		3. 독어	4 (2.20%)
	4. 상업	98 (46.7%)		4. 불어	8 (3.9%)
	5. 사무직, 공무원	18 (8.6%)		5. 스페인어	8 (3.9%)
	6. 행정 및 관리직	68 (32.4%)		6. 중국어	2 (1.0%)
	7. 전문직	4 (2.0%)			
어머니의 취업유무	취업무	150 (71.4%)	국내 체재기간	2년 이하	106 (74.3%)
	취업유	60 (26.2%)		3년 이상	36 (25.7%)
해외에서 재학 했던 학교유형	1. 현지학교	158 (76%)	재학학교의 귀국아동 비율	1. 전혀 없다	4 (2%)
	2. 현지 한국학교	4 (2%)		2. 1-5명	26 (12.6%)
	3. 인터내셔널 학교	24 (11.5%)		3. 6-10명	36 (17.5%)
	4. 기타	15 (12.8%)		4. 10명 이상	8 (3.9%)
		5. 20명 이상		132 (64.1%)	
해외체재 지역	1. 미국·캐나다	102 (51%)	해외체류 년수	1. 1-2년 미만	18 (9%)
	2. 일본	24 (12%)		2. 2-3년	16 (8%)
	3. 영국·불·독일	32 (15%)		3. 3-4년	18 (9%)
	4. 동남아시아	20 (10%)		4. 4-5년	32 (16%)
	5. 호주·뉴질랜드	12 (6%)		5. 5년 이상	120 (58%)
	6. 중남미	12 (6%)			

학교가 79%, 그리고 국제학교가 11.5%로 나타났다. 전일제 한국 학교에 다닌 아동들의 분포가 낮은 이유는 한국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체류국의 학교를 더 선호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만 열리는 한국학교에 다닌 경험은 53.4%가 있으며, 경험이 없는 학생도 45.6%나 되었다. 현재 재학학교의 귀국아동 비율을 살펴보면 외국생활 경험이 있는 아동이 60%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여기에는 어학연수 등도 포함된 비율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된다.

1) 배경변인

아동이 해외에서의 체류기간, 국내체재기간, 성별, 학년, 재적하고 있는 학교특성(귀국아동의 수), 아동의 성격특성, 가족적 배경 등의 기본적 속성을 조사하였다. 여기서 아동의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糖(1999)의 연구를 참고로 8문항을 작성하였다. 척도 문항은 “나는 사교적이어서 누구하고도 잘 이야기한다”, “나는 낯선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렵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향적인 성격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81이었다.

2) 귀국아동의 생활 실태

귀국아동이 우리 나라를 떠나 외국으로 이주해 갔을 때 그 나라 환경에서 전반적으로 자신이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외국에서 생활하다 국내에 돌아와서 국내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적응과정과 그들의 의식 수준을 SCT法 (Sentence Complete of Test)에 의해 응답을 구하였다.

3) 異문화체험 척도

異문화체험은 異문화접촉(cross-cultural contact)에 의해서 생겨나는 개인의 내적 과정의 변화를 말한다(箕浦, 1984). 異문화체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異문화체험의 構造를 연구한 濟藤(1996)의 척도를 본 연구자가 번역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5문항을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척도에 의해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異문화에 잘 적응한 것을 의미한다. 척도문항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행복하다"(-), "앞으로 외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의 내용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불만을 갖고 있어서 이전의 외국에서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외국지향」(濟藤 1996)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척도의 신뢰도는 $\alpha=.76$ 으로 나타났다.

4) 현재 생활에서의 사회·심리적 적응

아동이 귀국 후 현재 생활에서의 사회·심리적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일본의 濟藤(1996)와 塘(1999)의 척도를 본 연구자가 번역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23문항을 작성하였다. 귀국 후 아동의 생활에 관한 척도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학교활동 뿐만 아니라 친구관계, 문화적 갈등, 가정생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친구문제로는 "나에게는 이야기 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다" 등을 들 수 있으며 문화적 갈등으로는 외국 초등학교에서의 놀이 중심의 자유스러운 수업형태와 달리 한국은 주입식 수업이고 숙제가 많고 수업이 힘들다 등의 내용을 들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들은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의 어려움보다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단지 가

정생활에서의 적응 문제는 부모가 귀국 후 자녀에게 잔소리가 많아졌다는 내용으로 이는 한국 학교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부모의 잔소리가 늘었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가정생활보다 한국에서의 가정생활에서 더 많이 스트레스를 느끼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이장영, 1997).

이상의 배경을 고려하여 일본의 척도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척도의 타당도를 입증하기 위해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3요인 19문항이 추출되었다. 하나의 인자에 절대치 .40 이상의 부하량을 갖는 것을 조건으로 항목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요인 1은 8문항으로 '학교에 친구들이 없어서 외롭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교·친구와의 적응」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6문항으로 '복장이나 외모 등으로 친구들로부터 놀림 받아서 불쾌한 적이 있다', '귀국 후 부모님의 잔소리가 항상 신경이 쓰여서 긴장된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서적 스트레스·긴장」의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5문항으로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해서 곤란한 적이 있다', '학교공부가 어려웠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언어·학습에의 적응」의 요인으로 명명하였다(부록 참조). 해당하는 문항은 아동들에게 직접회답을 구했다. 이것은 아동들이 귀국 후의 적응상황을 보다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아동들 자신이 외국에서의 생활이나 귀국 후의 생활의 반응을 파악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척도에 의해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귀국 후 일상생활에 대해 사회·심리적으로 잘 적응하며 정서적 스트레스와 긴장을 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alpha=.78\sim.68$ 범위로 나타났다. 「학교·친구와의 적응」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78, 「정서적 스트레스·긴장」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69, 「언어·학습에의 적응」요인 신뢰도 계수는 .67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있는 서울시내 초등학교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담당 선생님께서로부터 해외귀국아동의 수를 파악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질문지의 요령을 설명하고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 및 회수하였다. 서울지역의 5개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초등학생으로 해외에서 거주 경험이 있고 한국어를 이해하는 귀국아동(초등학교 1년 이상 한국에 귀국한 아동) 250명에게 배포하여 236명인 94%가 회수되었다. 이중 불성실하게 대답한 질문지를 제외하여 최종분석자료는 해외귀국아동 212명(남아 102명, 여아 110명)이었다. 연구대상의 표집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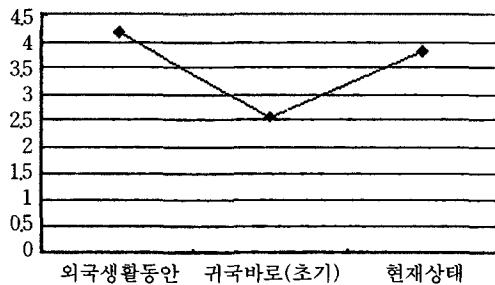
이상에서 얻어진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 α ,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분석은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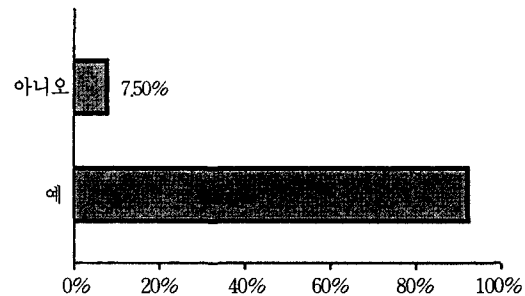
1. 해외 귀국아동의 생활실태

귀국아동의 생활 실태를 생활에서의 적응 과정과 그들의 의식수준을 알아보았다. 생활 적응이란 아동들이 문화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으로 이주해 갔을 때 그 나라 환경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외국에서 생활하다 국내에 돌아와서 바로 국내생활에서의 적응과 현재의 적응과정을 살펴본 결과 <그림 1>과 같다. 이는 외국에서 바로 귀국했을 때 보다 현재의 생활에 대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 생활에서의 적응보다 문화적인 차이로 국내생활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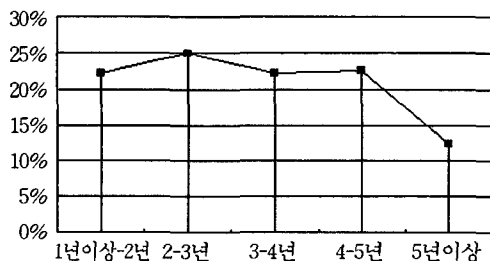
다음은 그들의 의식수준을 알아본 결과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2.5%가 긍정적인 응답을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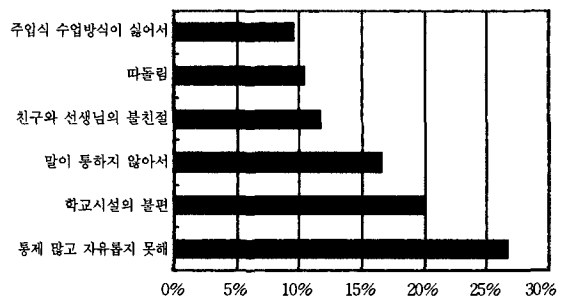
<그림 1> 해외귀국아동의 적응상태 변화



<그림 2> 다시 외국에 나가 공부하고 싶다



<그림 3> 해외체류기간별 한국인의 긍지



<그림 4> 현재 다니는 학교의 불편함

리고 75%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그림 2), 외국에 있을 때 한국인인 것에 자부심을 가졌는가 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이 63.1%, 긍정적인 응답이 36.9%로 나타났는데 이를 보면 거의 과반수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자각을 중요시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질문은 해외체류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그림 3>에 나타난 바, 해외체류 기간이 4-5년을 기점으로 해서 5년 이상인 아동집단은 12.3%만이 한국인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체류기간이 길수록 그 나라 문화에 동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동들에게 현재와 외국의 학교생활에서 경험한 것들에 비추어 양쪽의 장단점을 스스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현재 다니는 학교의 불편함에 대해 알아보았다. 외국에서 다녔던 학교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와의 비교에서 가장 불편한 점에 대한 응답을 보면 학교에 통제가 많아 적응하지 못해서가 26.7%, 학교 시설이 불편해서가 20%, 말이 통하지 않아서 16.7%, 친구와 선생님의 불친절이 11.7%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 그 외에 SCT法 (Sentence Complete of Test)에 의해 응답을 구한 결과 가장 많은 분포로는 "친구들에 의한 따돌림"이 10.3%, "주입식 수업방식이 싫어서"가 9.6%로 나타났다.

2. 성별·학년애 따른 사회·심리적 적응의 차이

성별·학년에 따른 사회·심리적 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학년, 그리고 성별과 학년과의 상호작용관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분산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성별에 따라서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1요인과 2요인에서 적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21, p<.05$; $F=2.53, p<.05$). 또한 학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조사대상 모두가 동일한 아동중기 시기에 속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3. 해외체류기간 및 문화 체험과 귀국후의 적응

연구문제 2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해외체류기간은 학교·친구애의 적응($r=-.22, p<.05$) 및 언어·학습애의 적응($r=-.17, p<.05$)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외체류기간이 짧은 아동일수록 귀국 후 학교·친구애의 적응뿐만 아니라 언어·학습애에 대한 적응도 높았다. 이문화 체험은 학교·친구애의 적응($r=-.25, p<.05$), 스트레스·긴장($r=-.18, p<.05$) 및 언어·학습애의 적응($r=-.24, p<.05$)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문화애 적응도가 낮을수록 귀국 후 학교·친구애의 적응도가 높았으며, 현재 생활에서 스트레스와 긴장도 덜 느끼며 또한 언어·학습애의 적응도 높았다.

<표 2>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사회·심리적 적응의 분산분석

요 인		제1요인 학교·친구애의 적응	제2요인 정서적 스트레스·긴장	제3요인 언어·학습애의 적응
성별	F값	2.21*	2.53*	1.21
	평균			
	남아	2.76(.59)	2.37(.50)	2.04(.60)
	여아	3.00(.61)	2.52(.62)	1.92(.55)
학년	F값	0.74	2.96	1.05
	평균			
	4학년	2.71(.59)	2.55(.61)	1.94(.55)
	5학년	2.61(.47)	2.34(.41)	2.14(.56)
	6학년	2.82(.67)	2.28(.53)	1.92(.65)

* $p<.05$ ** $p<.01$

〈표 3〉 해외체류기간 및 문화 체험과 귀국 후 적응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1. 해외체류기간					
2. 이문화 체험	.05				
3. 귀국후 학교·친구와의 적응	-.22*	-.25*			
4. 귀국후 정서적 스트레스·긴장	-.01	-.18*	.43***		
5. 귀국후 언어·학습에의 적응	-.17*	-.24*	.34***	.33***	1.00
N(명)	204	212	212	212	212
평균	4.08	2.22	2.71	2.45	1.98
표준편차	1.34	.41	.60	.51	.58

*p<.05 **p<.01 ***p<.001

4. 해외귀국아동이 귀국 후 사회·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과 해외체류기간은 학교·친구와의 적응과 언어·학습에의 적응과 관련이 있었다. 이에 성별, 해외체류기간 등의 해외 귀국아동의 관련변인 및 이문화체험이 귀국후의 사회·심리적 적응을 어느 정도로 설명하고 예언해 주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해외체류기간, 아동의 외향적 성격 및 이문화체험은 귀국 후 사회·심리적 적응의 전체($\beta=.30, p<.01$; $\beta=-.22, p<.05$)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은 18%

의 수준에서 사회·심리적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18, F=3.36, p<.05$). 이와 같은 결과는 해외체류기간이 짧을수록 외향적인 성격일수록, 이문화에 적응도가 낮을수록 사회·심리적 적응을 더 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학교·친구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외향적 성격($\beta=.29, p<.01$), 이문화체험($\beta=-.22, p<.05$), 해외체류기간($\beta=-.16, p<.05$)의 순이며, 이 변인들은 학교·친구와의 적응의 2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20, F=3.88, p<.001$). 정서적 스트레스·긴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외향적 성격($\beta=.31, p<.01$), 이문화체험($\beta=-.13, p<.05$)의 순이며, 이 변인들은 정서적 스트레스·긴장의 1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18, F=3.52, p<.01$). 그리고 언어·학습에의 적응은 이문화체험

〈표 4〉 주요변인들간의 상관관계 N=204

N=204

	1	2	3	4	5	6	7	8	9
1. 성별									
2. 학년	.17								
3. 학급의귀국아동수	-.01	.08							
4. 해외체류기간	-.08	.04	.16						
5. 국내거주기간	.31	-.59	-.58	-.60					
6. 이문화체험	.18	.08	.65	.05	.02				
7. 외향적성격	-.10	.06	-.20*	-.11	.01	-.03			
8. 학교·친구와의 적응	-.18+	.06	-.18	-.22*	.03	-.25*	.37***		
9. 정서적스트레스·긴장	-.16	-.13	-.18	-.01	.02	-.18+	.36***	.43***	
10. 언어·학습에의 적응	-.19+	.08	-.06	-.17*	.12	-.24*	.05	.35**	.34**

+p<.10 *p<.05 **p<.01 ***p<.001

〈표 5〉 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²	F
사회·심리적 적응 전체	성별	-.05	-.16+	.18	3.36**
	학년	.01	.01		
	학급의 귀국아동 수	-.02	-.07		
	해외체류기간	-.03	.10		
	국내거주기간	-.02	.04		
	이문화체험	-.21	-.22*		
	외향적성격	.20	.30**		
학교·친구와의 적응 (N=196)	성별	-.03	-.02	.20	3.88***
	학년	.04	.12		
	학급의 귀국아동 수	-.04	-.09		
	해외체류기간	-.07	-.16*		
	국내거주기간	-.02	.06		
	이문화체험	-.32	-.22*		
	외향적성격	.30	.29**		
정서적 스트레스·긴장 (N=132)	성별	-.08	-.08	.18	3.52**
	학년	-.06	-.20		
	학급의 귀국아동 수	-.02	-.05		
	해외체류기간	.02	.09		
	국내거주기간	.22	.09		
	이문화체험	-.16	-.13*		
	외향적성격	.26	.31**		
언어·학습에의 적응 (N=196)	성별	-.12	-.11+	.10	1.83*
	학년	.03	.09		
	학급의 귀국아동 수	-.02	-.04		
	해외체류기간	-.07	-.16		
	국내거주기간	.05	.16		
	이문화체험	-.32	-.23*		
	외향적성격	.05	.05		

+p<.10 *p<.05 **p<.01 ***p<.001

(β = -.23, p < .05)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이 변인은 언어·학습에의 적응의 1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 = .10, F = 1.83, p < .05)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에서 언어·학습에의 적응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던 해외체류기간이 회귀모델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최근 직업적 목적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외국에

살다가 귀국하는 귀국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외국에서 살면서 익힌 그 나라만이 갖는 문화에 익숙해진 후 그들이 귀국하여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귀국아동이 외국에서 이문화 체험과 귀국 후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밝힘으로서 귀국아동의 국내적응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해외귀국아동의 생활적응 과정을 보면 외국

에서 생활하다 귀국해서 초창기는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대해 체험하는 심리적 반응으로 습관, 언어 등에 익숙해 있던 것을 상실함으로서 일으키는 불안으로 일시적인 심리적 어려움으로 볼 수 있다. 학교생활에 관해 그들은 외국의 학교보다 한국의 학교가 더 많은 통제를 하고, 학교시설의 불편함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외국 학교와 한국 학교의 차이점은 해외 귀국아동들이 고국에서의 학교생활을 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기회가 되면 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귀국아동이 92.5%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장영(1997)의 귀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이 90%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외국에 있을 때 한국인으로서의 긍지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해외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아동집단은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이 12%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 결과로부터 실제로 귀국아동들은 우리말을 잘하게 되고 학교 공부를 어느 정도 따라가게 되면 문화적인 차원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귀국아동들의 부적응 요인임을 인지하고 교육환경 조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국민적 자각을 통한 자아발견의 길, 확고한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시급하다.

둘째, 해외귀국아동이 현재 생활에서의 사회·심리적 적응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해외귀국아동의 현재 생활의 적응도는 여아가 남아보다 학교나 친구관계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보다 여아가 학교활동, 친구관계, 학습활동 영역에서 적응을 더 잘 한다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지지하고 있다(김미경, 1999; 임경혁, 1994; 糖, 1995). 여아는 남아와 달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협동과 상호의존에 의미를 두지만, 남아는 독립성과 자율성 등을 더 추구한다는 Gilligan

(1982)의 주장과 일치한다. 반면 귀국아동의 적응은 학년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것은 대부분이 귀국당시의 학년이 초등학교에 해당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해외체류기간과 이문화체험은 귀국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즉, 해외체류기간이 짧을수록, 귀국 후 학교와 친구관계에서의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문화에서의 생활적응도가 낮을수록 귀국 후 생활에서의 사회·심리적 적응 전체에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해외체류기간에 따라 적응에 차이가 있다고 한 대부분의 연구결과들(島村, 1987; 小林, 1983; 최만희, 1989; 최경호, 1985)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해외에서의 체류기간이 길면 아무래도 그 문화에 사회화되어 문화적인 정체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귀국후 한국에 재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

네째, 아동관련변인 및 이문화체험이 사회·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사회·심리적 적응 전체에 아동의 외향적 성격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는 아동의 외향적 성격이 학교·친구관계에 적응을 잘하며, 생활에서의 정서적 스트레스·긴장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향적 성격을 갖은 아동이 귀국 후 현재 생활에서의 사회·심리적으로 적응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문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의 성격은 무엇일까. 미국에 이민 와서 성공한 사람의 특성을 연구한 결과(Krombholz & Hermann: 1987), 현지의 사람과 문화에 대한 흥미, 인내력, 사회성, 친절, 지적 호기심등을 특징으로 들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이문화 대처능력에 필요한 아동의 성격으로 외향성을 들고 있는 일본 선행연구(齊藤, 1996; 糖, 1999)와 일치한다. 또한 해외체류경험을 가진 아동이 귀국 후 초기에 실시한 심리학적 조사 결과, 해외에서도 귀국 후에도 개인적 요인으로 아동의 성격이 적응에 영향 미치고 있다는 小林(1975, 1977, 1978, 1980)의

연구를 지지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심리적 적응 전체와 각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이문화체험이 외국에서의 적응 정도가 학교·친구관계에의 적응, 생활에서의 스트레스·긴장, 언어·학습적응에 모두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즉, 이문화에 적응도가 낮을수록 귀국 후 학교나 친구관계에 적응을 잘 하며 스트레스와 긴장도 덜 느끼며 학습활동에도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문화 체험에 관해서는 대부분 일본에서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는데 해외귀국자녀를 대상으로 이문화 체험에서 생겨나는 심리적 장애를 다룬 연구결과(伊藤, 1980)와 일치한다. 즉, 이문화에서 부적응이었던 아동은 고국에 돌아와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문화에 적응이 잘 된 아동은 외국지향으로 고국에서의 생활에 스트레스와 긴장도 많이 느끼고 언어와 학습활동에 부적응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문화에 사회화되어 문화적인 정체감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재적응 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모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교과학습에서의 곤란, 친구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같은 학교 학습에서 부적응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부적응은 인성형성과 자아정체감 형성에 방해가 되기 쉽다.

伊藤(1980)는 귀국자녀 4-6학년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한 결과 귀국 사실을 알았을 때에 많은 아동들은 우울증적 감정·피로감, 비애감, 무력감, 불안-등을 체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국 후에 「귀국해서 좋았다」라고 응답한 집단과 「귀국해서 좋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집단으로 구분해서 귀국 후의 생활적응도를 살펴본 결과, 전자는 장래에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잘 적응을 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해외체류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장래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는 아동이 많아 부적응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귀국이라는 변화에 어떠한 태도를 갖고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따라서 귀국 후에 모국에서의 적응 및 생활의 방식이 규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齊藤, 1996).

따라서 앞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귀국이라는 태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학생은 중, 고등학생보다 가정과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외귀국 아동의 적응도를 가정변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속성에 따라 비교해 본다면 귀국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아동기를 외국에서 보낸 아동들은 자아가 완전히 정립되지 못하고 행동 및 성격이 주변 환경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에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있어 귀국 후 고국의 문화나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외의 문화에 사회화된 아동들의 적응도가 낮은 것은 타당성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의 경우 해외에서 익힌 언어, 문화의 유지신장, 그리고 귀국아동을 위한 적응교육, 개별지도는 물론 귀국아동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을 시행함으로써 일반 아동의 국제이해 교육에 귀국자녀교육을 이용하는 등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최근 우리 경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귀국학생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의 현장에서 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준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늦은 감은 있으나 하루속히 이들이 국내 교육환경 및 심리적으로 조기적응하고 이들이 습득한 외국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 및 신장하도록 도와주는 한편, 기존의 학생들과 함께 국제화 사회에 대응하는 세계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는 구체적인 교육목표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연구결과는 국내에서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해외귀국아동의 적응문제를 심리 사회적 차원에서 적응의 요인을 밝힘으로서 이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심리적 적응을 향상시키고, 부모들과 상담자들에게 해외귀국아동의 이해를 도모하여 귀국 후의 재 적응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교육과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가

진다. 첫째, 표집 대상을 서울시내의 4-6학년 초등학교생만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귀국아동의 경우에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둘째, 적응상의 영역을 사회, 심리적 적응에 관한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신체적인 적응을 포함한 전반적인 적응에 관해서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같은 내용의 질문지를 가지고 비교 조사하지 못한 점으로 인하여 해외귀국아동의 적응에 관련된 변인들이 그들의 특수성인지 아니면 아동에게 나타나는 보편성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에 해외귀국아동과 국내 일반아동을 동시에 검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정보가 제한되었다는 점이다.

■ 참고문헌

국제교육진흥원(1999). 귀국학생현황. 문교부.

권선미(1997). 해외 귀국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김미경(1999). 해외 귀국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김충희(1995). 해외 귀국청소년의 적응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애 외 2인(1995). 귀국 청소년 적응력향상 연구. 프로그램 종합보고서: 95-13. 재단법인 청소년 대화의 광장.

신진우(1997). 귀국자녀 교육에 대한 관련집단의 기대수준과 수행수준 차이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 대학원.

이임주(1982). 해외 귀국자녀 교육의 대책과 그 발전적 방향에 대한 조사연구. 재외국민교육논총, 9호,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원.

이장영(1997). 해외귀국청소년의 국내적응연구. 집문당.

장종현(2000). 조기유학, 반드시 가야만 하는가 - 과잉기대는 정상적인 성장을 압박한다. 지방포럼.

차경수(1998). 귀국학생의 국내교육 적응 방안, 귀국학생 조기교육 및 국제성유지신장방안, 귀국학생 교육담당 중등교원 연수교재,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

최경호(1985). 해외귀국자녀에 관한 조사연구. 재외국민논총 85: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원.

최만희(1993). 해외체류자녀의 귀국 후 적응교육. 국제교육.

최화순(1990). 해외귀국아동의 적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개발원(1992). 국제고등학교 설립방안 연구 동아일보 1993년 7월 13일, 7면

동아일보 2000년 7월 29일, 7면

Abe, H. & Wiseman, R. L. (1983). A cross-cultural confirmation of the dimensions of intercultural effective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7(1), 53-67.

Adler, P. S. (1975). The transitional experience: An alternative view of culture shock. *The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15(4), 13-23.

Black, J. S. & Mendenhall, M. (1991). The U-Curve adjustment hypotheses revisited : A review and theoretical framework.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econd quarter*, 22, 225-247.

Black, J. S., Mendenhall, M., & Oddou, G. (1991). Toward a comprehensive model of international adjustment : An integration of multiple theoretical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6, 291-317.

Bochner, S. (1982). The social psychology of crosscultural relations. In S. Bochner (Ed.). *Culture in contact: Studies in crosscultural interaction*. Pergamon Press.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723-742

Dunn, J. & Munn, P. (1986). Sibling and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s. *International Journal of*

- Behavioral Development*, 9, 265-284
- Fuller, J. (1999). Predictors of reentry shock in american adolescents who lived oversea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greensboro, north carolina.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AUniversity Press.
- Gnepp, J. & Hess, D. L. R. (1986). Children's Understanding of Verbal and Facial Diaplay Rul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103-108
- Gomi, R. (1992). The Impact of Children Returning to Japan on the Behavior and Feeling of Japanese Children ; Conflict and Trust in Japanese children. In Wilpert, B., Motoaki H., & Misumi, J. (Eds.), *General Psychology and Environmental Psychology*, Proceeding of the 22nd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2, Lawrence Erlbaum Associates Ltd.
- Gullahorn, J. T. & Gullahorn, J. E. (1963). An extension of the U-curve hypothesis. *Journal of Social Issues*, 19, 33-47.
- Hartup, W. W. (1992). Children and their friend : contemporary perspectives. In McGurk (Ed.)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Erlbaum.
- Hayes, R. L. & Lin H. R. (1994). Coming to America : Developing social support systems for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2(1), 7-16
- Jassens, M. (1995). Intercultural interaction: A burden on international manager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6(2), 155-167.
- Kliever, W. & Sandler, I.N. (1992).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as moderators of stressor-sympton relation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4).
- Kohlberg, L., Snarey, J., & Reimer, J. (1984). *Cultural universality if moral judgement stages: A longitudinal study in Israel*. In L. Kohlberg. *Essays in moral development*. Harper & Row, 2.
- Krombholz, H. & Herrmann, T. V. (1987). Internal cross-cultural management. *Psychologie in Erziehung und Unterricht*, 34(4), 254-263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Springer. Oberg, K. (1960). Cultural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nments. *Practical Anthropology*, 7, 177-182.
- 伊藤賀永(1980). 歸國子女の精神衛生. 季刊精神療法, 6(4).
- 齊藤耕二(1988). 歸國子女の適應と教育-異文化間心理學からのアプローチ 社會心理學, 3(2), 12-19.
- 齊藤耕二(1996). 異文化體驗の心理學, 川島書店.
- 糖 利枝子(1999). 子どもの異文化受容. ナカニシヤ出版.
- 星野 命(1980). 概説 カルチャー・ショック 星野 命 (偏執・解説) カルチャー・ショック 現代のエスプリ 161 地文堂
- 小林哲せほか(1977). 在外・歸國子女の適應教育の條件に関する綜合的研究 研究記録集 I, II 京都大學 教育學部比較教育學研究室.
- 小林哲せほか(1978). 在外歸國子女の適應に関する調査報告, 海外歸國子女教育研究, 京都大學 教育學部比較教育學研究室.
- 小林哲せほか(1980, 1981). 教育における文化的同化と多様化, 研究記録集 I, II 京都大學 教育學部比較教育學研究室.
- 箕浦康子(1981). いくつになったら“日本人”になるのか-文化的歸屬感の形成と認知發達-發達, 2, 15-22.
- 箕浦康子(1984). 子供の異文化體驗-人格形成過程の心理人類學的研究, 思索社.

<부록> 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대한 요인분석

번호	문항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26	나에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다	.75	-.03	.01
20	학교의 친구들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준다	.70	.25	-.01
17	소풍이나 학교행사가 즐겁다	.64	-.12	.08
11	학교에서의 운동회·체육대회 등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재미있다	.63	.10	.19
10	학교에 쉬는날이 계속되면 학교에 가고 싶다	.62	.02	.14
9	학교에 가는 것이 재미있다.	.62	.42	.14
21	학교에 친구들이 없어서 외롭다	.59	.18	.05
13	우리반 학급 분위기는 좋다	.57	.41	.05
3	귀국 후 부모님의 잔소리가 항상 신경이 쓰인다	-.04	.62	.12
2	일요일에는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 멍하게 지낸 적이 많다	.15	.53	.10
23	복장이나 행동 등으로 친구들로부터 놀림 받아서 불쾌한 적이 있다	.21	.50	.02
15	학교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몰라서 불안한 적이 있다	.07	.45	-.08
5	나의 고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에 응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신다	.24	.42	.25
12	학교 규칙을 지키는 것이 신경 쓰인다	-.19	.41	.18
27	주입식 수업방식이 싫다	-.05	.22	.72
14	학교 공부가 어렵다	.13	.03	.68
25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해서 곤란한 적이 있다	.10	.04	.65
19	수업시간에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 없다	.14	-.23	.53
16	학교 숙제나 시험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04	.32	.48
고유값		4.75	2.60	1.96
인자기여율(%)		39.4	23.8	13.1
누적기여율(%)		39.4	63.2	76.3